JB Weekly Web Magazine

2026.01.21

“ Your Gateway to Global Trade ”

KOREA AEO

FTA / CLEARANCE / REFUND / QUARANTINE / CONSULTING

장백관세사무소

JB Weekly Web Magazine #2026-03

Contents

01 기업이 묻고 유튜브로 답하는 '김 사무관이 알려주는 미 관세대응 꿀팁' p.1

02 인천-인도네시아 컨테이너선 직항항로 개설 p.2

03 "관세전쟁 무색" 중국 무역 '역대 최대' ASEAN은 '중국 의존 심화'로 부담 p.3

04 농식품부, K-할랄식품 글로벌 진출 확대 위한 민·관 협의체 본격 가동 p.5

05 우리 수출 튼튼한 허리 담당할 '수출스타 기업' 500개사 본격 육성 p.6

장백관세사무소

❶ 산업부, 기업이 묻고 유튜브로 답하는 ‘김 사무관이 알려주는 미 관세대응 꿀팁’ 제작·배포

보호무역 조치 관련 수출기업 애로해소 위해 유튜브, 관세대응119 등 활용한 디지털 소통 강화

사무관이 직접 유튜브에 출연해 통상 정보를 전달하고, 범정부 관세애로 통관창구를 통해 뉴스레터를 제작해 배포하는 등 디지털을 통한 무역·통상 소통이 강화되고 있다.

산업통상부는 1월 21일 최근 주요국 보호무역 조치 확대로 수출 현장의 어려움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확한 정보 제공 및 무역·통상 관련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 디지털 홍보와 소통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관계 기관과 함께 ‘산업부 김 사무관이 알려주는 미 관세대응 꿀팁’ 영상 시리즈를 제작해 배포한다. 영상은 비특혜원산지 규정, 철강·알루미늄 함량가치 산출, 관세환급·사후검증 등 기업이 주로 혼란을 겪는 이슈를 산업부 관세대응 담당 사무관이 직접 출연해 3대 핵심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관세대응 119 리포트’도 격주 단위로 배포한다. 리포트에는 범정부 관세애로 통합상담 창구인 ‘관세대응119’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11개 협력기관이 참여해 글로벌 보호무역조치 동향, 범정부 주요 지원사업, 기업대응 사례 및 전문가 칼럼 등이 담긴다.

제작된 콘텐츠들이 기업과 국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KOTRA에 디지털소통 TF를 발족하고 SNS, 유튜브 등을 활용해 홍보를 강화한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보호무역 조치 대응 관련 국민·기업 체감형, 기획형 콘텐츠를 지속 확충하고, 산업부와 KOTRA를 비롯한 관세대응119 협력기관의 홈페이지, 유튜브, 뉴스레터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제공하기로 했다.

❷ 인천-인도네시아 컨테이너선 직항항로 개설… 수도권 수출입기업 물류 경쟁력 강화 기대

주 1항차 서비스로 연간 약 12만TEU 이상 신규 물동량 창출 전망

해외직구 인천항과 인도네시아를 잇는 신규 항로가 개설됐다.

인천항만공사는 KCI(Korea-China-Indonesia) 컨테이너 정기 서비스가 1월 13일부터 인천항에서 신규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KCI 서비스는 주 1항차 정기 서비스로, 인천–칭다오–상하이–자카르타–수라바야–셔코우–부산–인천을 순환 기항한다. 이번 항로에는 2,200TEU급부터 2,954TEU급까지 총 4척의 컨테이너선이 순차 투입된다.

신규 서비스의 첫 항차로는 인터아시아 라인(Interasia Lines)의 'INTERASIA ENGAGE'호(2,200TEU급)가 1월 13일 한진인천컨테이너터미널(HJIT)에 입항했다.
이후 TS Lines, GSL, 남성해운 선박이 순차적으로 투입돼 안정적인 항로 운영이 이뤄질 계획이다.

인천항만공사는 이번 항로개설을 통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수라바야 지역을 중심으로 수출입 물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자카르타향 고지(waste paper), 폴리염화 비닐(PVC) 등 수출화물과 중국 선전발 가구류 수입 화물을 중심으로 연간 약 12만TEU 이상의 신규 물동량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경규 인천항만공사 사장은 "이번 인도네시아 신규항로 개설은 동남아 신성장 시장과 인천항을 직접 연결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신성장 시장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마케팅과 항로 유치를 통해 수도권 수출입 기업의 물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❸ “관세전쟁 무색” 중국 무역 ‘역대 최대’… ASEAN은 ‘중국 의존 심화’로 부담

ASEAN, 성장 속 ‘중국 의존’ 딜레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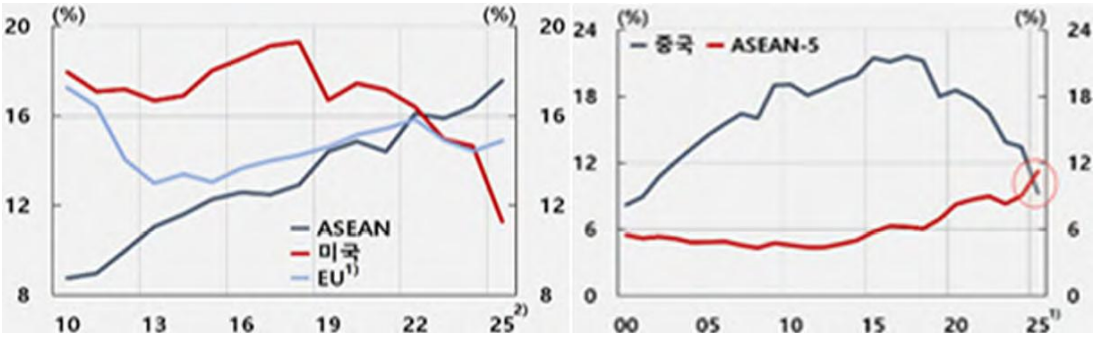
해외직구 인천항과 인도네시아를 잇는 신규 항로가 개설됐다.

중국의 미국과의 ‘관세전쟁’이 이어지는 가운데서도 중국의 무역 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대미 교역은 줄었지만, 유럽연합(EU)과 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아프리카 등 신흥시장으로 수출 축을 빠르게 옮기며 성장을 이어간 것이다.
특히 중국의 성장이 두드러지면서 ASEAN은 중국 대체시장인 동시에 중국에 대한 의존 심화와 산업 경쟁력 약화라는 이중 부담에 직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전문가포럼(CSF)에 따르면, 중국 해관총서는 14일 지난해 중국의 수출입 총액이 45조 4,700억위안으로 전년 대비 3.8%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중국의 무역 규모는 2017년 이후 9년 연속 성장했다.
수출은 26조 9,900억위안으로 6.1% 늘었고, 수입은 18조 4,800억위안으로 0.5% 증가했다.
수출·수입·수출입 총액 모두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무역 흑자 역시 사상 최대다.
지난해 중국의 무역 흑자는 1조 1,890억달러(약 1,757조원)로, 전년 대비 20% 확대됐다.
교역국은 240개국에 달했고, 이 중 190개국과의 교역이 증가했다. 미국과의 교역 비중은 전체의 8.8%에 그쳤다.
반면 미국을 제외한 지역으로의 수출은 크게 늘었다.
지난해 12월 기준 중국의 EU 수출은 전년 대비 12%, ASEAN 수출은 11% 증가했다.
같은 기간 EU로부터의 수입은 18% 늘었고, ASEAN으로부터의 수입은 5% 감소했다.

[중국의 경제권역별 수출 비중(좌) & 미국 수입에서 중국과 ASEAN-5의 비중(우)]



출처 : 한국은행

[다음 페이지에서 계속됩니다]

❸ “관세전쟁 무색” 중국 무역 ‘역대 최대’… ASEAN은 ‘중국 의존 심화’로 부담

ASEAN, 성장 속 ‘중국 의존’ 딜레마

중국의 성장 이면에서 가장 큰 변화를 겪고 있는 지역은 ASEAN이다.
한국은행이 15일 발표한 ‘중국의 아세안 수출 확대가 아세안 경제에 미친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강화된 관세정책으로 중국의 수출처 전환은 더욱 가속화됐으며,
미국 이외 지역으로 향한 중국 수출 증가분의 약 30%를 ASEAN이 흡수했다.

2025년 들어 ASEAN에서는 ▲수출 호조 속에서도 대중국 무역불균형 심화, ▲물가 하방 압력 확대,
▲중국 제품과 경쟁하는 현지 기업의 경영 악화라는 세 가지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2021~2024년 ASEAN의 수출은 증가했지만, 대부분 국가에서 GDP 대비 제조업 부가가치 비중은
감소하거나 정체됐다.

아이러니하게도 미국 시장에서는 ASEAN 제품이 중국 제품을 빠르게 대체하고 있다.
대미 수출 시 중국보다 ASEAN의 관세율이 낮기 때문이다.
미국 이외 시장에서도 ASEAN은 글로벌 생산거점 역할 확대와 중국산 중간재 활용을 통한 경쟁력 상승으로
수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행은 이 같은 호조가 구조적 취약성을 동반한다고 지적했다.
2025년 들어 ASEAN의 대중 무역수지 적자는 더욱 확대됐다.
중국산 중간재를 활용해 미국으로 수출하면서 ‘대중 적자–대미 흑자’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한국은행 김보희 아태경제팀 차장은 “미·중 갈등 이후 ASEAN은 중국의 대체 생산거점으로 부상했지만,
역설적으로 중국 중심의 공급망에 편입이 가속화됐다”고 분석했다.
한국은행이 국제 산업연관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ASEAN 수출은 자국 부가가치 비중이 낮고 중국 의존도가 높다.
중국은 대미 수출 경로로 베트남 등 ASEAN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그 결과 ASEAN은 수출 외형은 커졌지만, 부품과 중간재의 대중 의존, 소비재 수입 증가로 제조업 기반은
상대적으로 약화됐다는 평가다.

한국은행은 “ASEAN 국가들은 수출을 통한 성장을 지속하면서도, 중장기적으로는 대중 의존
도를 줄이고 자체 제조업 역량을 강화해야 하는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고 진단했다.

❹ 농식품부, K-할랄식품 글로벌 진출 확대 위한 민·관 협의체 본격 가동

관계 부처, 수출 지원기관, 할랄 인증기관 등 한자리 모여 수출 지원 전략·계획 공유

우리 농식품 수출액의 11%를 차지하고 연 평균 6.2% 성장이 전망되는 글로벌 할랄식품 시장 공략을 위한 민·관 협의체가 본격 가동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월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출 지원기관, 수출기업과 함께 제1차 할랄식품 수출지원 협의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할랄 협의체는 작년 12월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글로벌 K-푸드 수출 확대 전략의 후속 조치로 민·관 협력을 통한 K-푸드의 글로벌 할랄식품 시장 진출 지원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협의체 회의 결과 농식품부는 할랄 협의체 등의 지원체계를 비롯해 인증 비용 부담 완화, 해외 물류 인프라 확충, 온·오프라인 마케팅 강화 등을 공유하고, 식약처는 글로벌 식품안전규제 정보시스템(CES Food DB)에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등 주요 중동 수출국의 식품 규제정보 제공 확대 등을 통해 중동 수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유관기관에서는 올해 할랄식품에 대한 주요 수출 지원 계획을 공유했다.

한국식품연구원은 할랄 인증 취득에 필요한 성분 분석 지원 및 인증 적합 원료 선정부터 인증 취득까지 통합적으로 지원한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수출기획단에서 선정된 전략품목을 글로벌 차세대 K-푸드 프로젝트 등을 통해 육성하고 할랄 식품박람회 참가를 지원하는 한편, K-할랄식품 페어와 온라인 K-할랄식품 전용관을 신규로 추진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두바이 한류박람회 참여 할랄식품 기업을 지원하고, 카타르 시장 진출을 위한 대형 오프라인 판촉 및 기업의 쇼케이스를 지원한다. 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 해외수출지원센터를 통해 해외인증 취득에 필요한 컨설팅과 수출국 맞춤형 제품 개발, 시제품 생산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한편, 할랄 인증기관과 수출기업은 할랄 인증 현황과 인증 확대 계획 또는 할랄 인증 식품 수출계획을 공유하고 관계 부처 및 참여 유관기관과 할랄식품의 글로벌 진출 확대 관련 애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정경석 식품산업정책관은 "지난해 이슬람협력기구(OIC) 57개 국가로 수출한 할랄식품 수출액은 11억 9,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7.8% 증가했으며, 이는 전체 농식품 수출액의 11.4%를 차지한다"며, "글로벌 할랄식품 시장은 2023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연평균 6.2% 성장이 전망되는 바, 이번 할랄 협의체 첫 회의를 계기로 앞으로도 기업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해소해 K-할랄식품 수출 확대를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❺ 우리 수출 튼튼한 허리 담당할 '수출스타 기업' 500개사 본격 육성

KOTRA·무보 등 5개 전문기관 프리미엄 마케팅·인증·금융·R&D 책임 지원

대기업 중심 수출구조를 벗어나 안정적인 수출 기반 마련을 위한 수출 유망기업 육성이 본격화 됐다.

산업통상부는 우리 수출의 허리에 해당하는 수출 1,000만달러 이상 스타기업 500개사를 육성하는 K-수출스타 500 사업의 참여기업 모집을 1월 16일부터 개시했다고 밝혔다.

최근 우리나라 수출은 역대 최초 7,000억달러를 돌파하며 양적으로 크게 성장한 반면 수출 상위 1% 기업군의 수출액이 국가 수출액에서 약 84%를 차지하고 중소 수출기업의 수출액 비중은 8% 수준에 그쳐 수출구조가 양극화된 상황으로 수출 체질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올해 신설된 이번 사업은 우리 수출의 튼튼한 허리가 되는 수출스타 기업 500개사를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수출 유망기업을 선발해 수출 핵심 애로를 기업에 맞춰 집중 지원하는 방식으로 육성된다.

지원대상은 뷰티·식품 등 소비재, AI·반도체 등 첨단산업, 자동차·기계 등 주력산업 3대 분야 수출 유망기업 100개사다.

선정된 기업은 연간 최대 5억 6,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전담 멘토와 지원 기능별 멘토로 구성된 수출스타 멘토단 15인의 1:1 상시 컨설팅을 제공 받는다. 이를 통해 기업별 수출목표와 맞춤 전략을 반영한 수출플랜을 기획하고, 국내 수출 전문기관의 4대 분야 원스톱 지원 서비스와 함께 20개 현지 수출스타 파트너 무역관을 통해 현지 특별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 무역보험공사(무보) 등 5개 전문기관은 프리미엄 마케팅, 인증·특허, 수출금융, R&D 컨설팅 등 4개 분야 지원 및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수출스타 메이커로서 유망기업을 책임 지원한다.

산업부 강감찬 무역투자실장은 "신시장, 신품목을 개척하는 수출스타 기업 육성은 수출 양극화를 극복하고 모두의 수출구조를 만드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5개 전문기관과 정부가 원팀으로 힘을 합쳐 글로벌 시장 주역으로 육성해 준다면, 수출 1조달러 시대 실현이 머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업신청은 2월 11일까지이며, KOTRA(www.kotra.or.kr), KCL(www.kcl.re.kr), KIAT(www.kiat.or.k), KEIT(https://srome.keit.re.kr), 무보(www.ksure.or.kr)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전체 기사 내용에 대한 모든 법적 권한은 출처인 한국관세무역개발원에 있음을 밝힙니다